

“함블리’ 별명 귀여워 맘에 들어요”

종영 ‘미스터 션샤인’ 함안택 이정은 단호함과 귀여움 오가며 극에 활력 더해 “긍정적인 힘 주는 배우 되고 싶어요”



“함블리’라는 별명요? 마음에 들어요. 귀여운 느낌이 있었어요. 아예 이름을 이걸로 바꿀까 싶어요. (웃음)”

최근 종영한 tvN 주말극 ‘미스터 션샤인’에서 배우 이정은(48)이 연기한 함안택은 극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단호함과 귀여움을 오가고 애기씨 고애신을 얼마처럼 돌봐주는 그야말로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었다.

이정은은 같은 시기에 방송된 tvN 수목극 ‘아는 와이프’에서는 여주인공 서우진 엄마로 열연했다. 그를 최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만났다.

“함안택은 긍정적이지만 어느 정도 격정이 많고, 또 그 격정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작가님이 함안택이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게 충알을 빼내고 치료한다거나 하는 ‘경력자’ 같은 모습도 배치해서 가벼우면서도 진중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게 해주셨죠. 처음엔 고민 많이 했어요.”

서울 토박이인 이정은은 사투리 연기를 위해 선생님까지 두고 공부했다고 한다.

화제가 된 함안택의 귀여움 비결에 대해서는 “체격이 아닐까”라며 “제 몸 전체에 흐르는 부드러운 선을 시청자들이 좋아하고 친근하게 생각 하는 것 같다”고 웃었다.

이정은은 함안택이 숨을 거두는 마지막 장면에서는 “많이 울었다”고 회상했다.

극 중 행랑아범(신정근 분)과의 로맨스도 마지막 장면에서는 심금을 울렸다.

“신정근 선배는 정직하고 담백한 연기를 하세요. 그 눈만 봐도 애정이 느껴졌는데 무심한 척 하는 게 힘들었죠. ‘촬영하는 동안에 내가 옆에 있어서 행복했다’고 말할 때 눈물이 났어요. 같이 촬영한 묘한 동질감이 끝나는 장면까지 이어지니까 애절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로맨스 연기) 행운이죠. 제가 그런 거 언제 해보겠어요. (웃음)”

‘아는 와이프’에서는 실제 나이보다 연령대가 더 높은 역할을 연기했다.

“제가 결혼을 아직 안 했는데, 작품 할 때마다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이를 키워



본 적 없으니까 사실 부족하죠. 그래서 그 작품에서 그 배우와 계속 생활하는 걸 생각해요. 예전엔 70~80대 역할도 한 걸요. 자식이 점점 많아지네요. (웃음)”

동료 배우들에 대한 칭찬도 이어갔다.

“김태리는 단단한 배우예요. 쉽게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죠. 그러다가 어린애 같은 모습이 쏙 나오기도 하고 만날수록 양파를 까는 느낌이에요. 한지민 씨는 저보다 어른 같기도 하고 현장에서 리드하는 역할이 탁월하죠. 성격도 정말 밝고요. 그리고 보니 저는 미안하고만 만났네요. (웃음) 이병헌 씨는 실제로는 저와 한 살 차인데 그분은 몇 년째 같은 얼굴이에요. 연기를 너무 잘하는 배우죠. 우리 사위(‘아는 와이프’ 차주혁 역을 맡은 지성)는 참 바르죠. 전 무한 애정입니다.”

이정은은 ‘미스터 션샤인’이 ‘세드 앤딩’으로 끝난 데 대해서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런 비극이 우리한테 새로운 것을 상기하는 것 같다”며 “저는 운동권 세대라 그때 생각도 많이 났다. 시대가 어려우면 젊은이들이 기량을 맘껏 발휘하지 못한다. 그런 시대를 상기하기 위해서는 비극적인 엔딩이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정은은 1991년 연극 ‘한여름 밤의 꿈’으로 데뷔해 30년 가까이 무대, 스크린, 안방극장을 오가며 내공을 쌓았다. 연이은 두 작품으로 최근 광고도 찍었다.

“CF는 이번에 두 개씩 찍어요. 놀라운 경험이에요. 제가 언제 광고를 찍겠어요. 게다가 화장품이에요. (웃음) 차기작으로는 드라마 ‘눈이 부시게’를 할 예정이에요. 지금은 전성기라고들 하시는데, 저는 작품에 잘 집중하고 있을 때가 전성기인 것 같아요. 시청자들이 많이 알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어떤 일에 몰입하고 있는 것 자체가 희열이 느껴져요.”

그는 ‘긍정적인 힘 주는 배우’가 되고 싶다고 한다.

“저에게 초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열심히 하면 그 긍정적인 힘이 주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요? 저 노인 문제에 관심 많은데, 그 부분에도 도움을 주고 싶어요. 연기를 잘하는 배우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베트남 합작 웹드라마 ‘어바웃 유스’ ‘바닐라씨’ 제작...문화전당 등 지역 명소 담아내

광주지역 웹드라마 스튜디오 ‘바닐라씨’가 최근 베트남과 합작한 웹드라마 ‘어바웃 유스’(About Youth)〈사진〉 제작에 들어갔다.

지난해 10월 출간한 ‘바닐라씨’는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콘텐츠코리아랩 G.크리에이터 지원사업을 통해 웹드라마 ‘연애인턴 최우성’, ‘오늘의 주제’를 선보인 뒤 전라도 정도 전년을 기념해 보해양조와 ‘오늘의 안주’를 함께 제작해 예능 부문으로도 영역을 넓혔다.

‘어바웃 유스’는 10분짜리 8부작으로 베트남 하노이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꿈을 지켜나가는 네 청춘의 로맨스를 그렸다. ‘연애인턴 최우성’을 연출한 임수정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소설 ‘길고양이 그녀’의 안진지 작가가 각본을 맡았다. 베트남 유명 가수인 장미(Jangmi)와 웹드라마를 통해 이름을 알린 손우현, 차보성, 김영대가 주인공으로 출연한다. 또 베트남 가수 티노(Tino)가 조연으로 나오고 베트남 아이돌 그룹 ‘제로9’가 카메오로 출연한다.

베트남에 있는 한국 기획사의 인턴사원 김치(장미)는 한국인 상사 재이(김영대)가 베트남으로 발령되며 직장생활이 꼬여간다. 김치는 우연히 간 카페에서 한국인 하웅(손우현)을 만나 정규직이 되기 위한 ‘동맹’을 맺는다.

이 작품에는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광주·전남의 명소 곳곳이 등장한다. 드라마의 주된 배경인 베트남의 매력적인 경관을 등장시켜 이국적인 장면을 연출할 예정이다. 지난날 광주 촬영을 마친 뒤 11월 중 베트남 촬영이 예정된 ‘어바웃 유스’는 내년 1월 바닐라씨의 페이스북 페이지(facebook.com/vanillasee)와 유튜브, 네이버TV 등에서 공개된다.



베트남에 있는 한국 기획사의 인턴사원 김치(장미)는 한국인 상사 재이(김영대)가 베트남으로 발령되며 직장생활이 꼬여간다. 김치는 우연히 간 카페에서 한국인 하웅(손우현)을 만나 정규직이 되기 위한 ‘동맹’을 맺는다.

이 작품에는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광주·전남의 명소 곳곳이 등장한다. 드라마의 주된 배경인 베트남의 매력적인 경관을 등장시켜 이국적인 장면을 연출할 예정이다. 지난날 광주 촬영을 마친 뒤 11월 중 베트남 촬영이 예정된 ‘어바웃 유스’는 내년 1월 바닐라씨의 페이스북 페이지(facebook.com/vanillasee)와 유튜브, 네이버TV 등에서 공개된다.

‘나랏말싸미’ 등 우리말 소재 영화 잇따라 제작

우리말을 소재로 한 영화들이 잇따라 제작된다.

9일 영화계에 따르면 송강호와 박해일이 주연한 영화 ‘나랏말싸미’는 지난 7일 본격적인 촬영에 들어갔다.

‘나랏말싸미’는 백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훈민정음을 창제한 세종과 불굴의 신념으로 함께 했지만, 역사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다.

송강호와 문자와 지식을 독점한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글 창제를 시작했던 세종대왕 역을, 박해일은 세종대왕과 함께 뜻을 합쳐 한글을 만드는 신미 스님역을 각각 맡았다.

윤계상과 유혜진이 호흡을 맞춘 ‘말모이’도 내년 개봉을 앞두고 있다.

‘말모이’(임유나 감독)는 우리말 사용이 금지된 일제강점기, ‘까막눈’ 판수(유혜진)가 조선어학회 대표 정환(윤계상)을 만나 조선어 사전 편찬을 위해 비밀리에 전국 우리말을 모으는 내용을 그렸다.

TV프로그램

1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비밀과 거짓말(재)	4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산소리	35 닥터 365 40 나도 엄마야
9	30 KBS 뉴스	00 차달래 부인의 사랑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내 뒤에 테리우스(재)	1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50 UHD 한식의 마음(재)	00 오늘의 탐정(재)		00 열린TV 시청자 세상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5 헬로키즈 신비한 자연교실 55 장애인식개선 프로젝트 우리동네 피터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테마스페셜
1	00 KBS네트워크특선 별의별 중계 50 다크 공감(재)	00 속보이든TV 인사이드(재)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40 동물의 건축술 플러스(재) 50 전국노래자랑(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00 뉴스브리핑
3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에어로빅 55 양로비 MBC 다크프라임	
4	00 사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45 신비한TV 서프라이즈 스페셜 55 5 MBC 뉴스	00 KBC보도특집 일지리가 미래다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파파독 2 30 2018 영화의 바다로	15 실화탐사대 스페셜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5 생방송 빛날	00 닥터 365 05 고향건물록 남도에 살았리다 55 지식 통조림
7	00 KBS 뉴스 7 35 미니디큐	50 끝까지 사랑	15 비밀과 거짓말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10 생방송 TV블로그 쏘지락
8	00 집중 인터뷰 이사람 25 내일도 맑음	30 글로벌24 55 살림하는 남자들	55 실화탐사대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발굴단
9	00 KBS 뉴스9			
10	00 시사토론 '10' 55 UHD 숨터	00 오늘의 탐정	00 내 뒤에 테리우스	00 흥부외과 :심장을 훔친 의사들
11	00 KBS 뉴스라인 40 오늘밤 김제동	10 회사 가기 싫어	10 라디오스타 1~2부	10 백중원의 골목식당 1~2부
12	0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50 인간극장 스페셜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세상의 모든 다크	40 스포츠 다이어리 55 함께사는세상 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투가스와 온가스 샌드위치〉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한국에 없는 부자를 찾아서〉	11:20 세계테마기행(재)
06:00 한국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06:20 세계테마기행(재) 〈삶을 노래하라! 인도네시아 3부〉	12:10 EBS 초대석
07:00 울강한 소방차 레이	13:00 지식채널e
07:30 꼬마버스 타요	13:10 세상을 나쁜 개는 없다
08:00 댕동댕 유치원1~2	13:40 우리 가족 거리 줄이기-부모성적표(재)
08:30 미니특공대 X	14:30 코코몽3
08:45 말랄라 뿌우	15:00 마사와 곰 스페셜
09:00 엄마 까투리	15:15 출동! 피자마 삼총사
09:30 원더볼스	15:45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09:40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16:15 울강한 소방차 레이
10:30 한국기행(재)	16:30 말랄라 뿌우(재)
	16:45 댕동댕 유치원1~2(재)
	17:15 엄마 까투리
	17:30 꼬마버스 타요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5
	19:00 정글에서 살아남자-화산섬의 비밀
	19:30 EBS 뉴스
	19:50 메디컬 다크 - 7요일
	20:40 세계테마기행 〈알수록 신비한 부탄 3부 봄탕과 트롱사 특별한 겨울맞이〉
	21:30 한국기행 〈나의 좌충우돌 집짓기 3부 대실택 삼형제 마루를 놓다〉
	21:50 EBS 다크프라임
	22:45 극한직업
	23:55 EBS 초대석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10일(음 9월 2일 乙亥)	
子	36년생 안간힘을 쓰고 있는 흐름이다. 48년생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과실을 최소화 하라. 60년생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72년생 정조가 보이거든 근본적인 부분부터 처리해야 한다. 84년생 소신껏 임했을 때 탄력이 붙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65, 24	午	42년생 사소한 것이 원인이 될 수도 있다. 54년생 관제 구설을 주의 해야겠다. 66년생 오래 전부터 반복된 것이니 징후를 쉽게 감지할 수 있으리라. 78년생 어느 한 순간에 급속히 변화해야 할 것이다. 90년생 서서히 회복되어 가는 면모를 띠고 있다. 행운의 숫자 : 84, 81
丑	37년생 주변의 여건과 조화를 이뤄야만 시의적절한 판세가 된다. 49년생 분주할 것이다. 61년생 낮추어 보다가는 큰일 나는 수가 있다. 73년생 일보 전진을 위한 것이라면 이보 후퇴도 무방하다. 85년생 직시하지 못한다면 파멸을 부를 뿐이다. 행운의 숫자 : 76, 95	未	43년생 충동적인 판단 하에서 기인한다면 후회가 따른다. 55년생 함께하는 것도 괜찮다. 67년생 너무나 비속비속 하니 착오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자. 79년생 기다리고만 있으면 될 것이니라. 91년생 굽어서 부스럼 내지 말고 잡자고 있다. 행운의 숫자 : 56, 65
寅	38년생 결국에는 변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50년생 상당히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국면에 놓여있다. 62년생 관심을 가져 왔던 바에 효과가 드러나리라. 74년생 상대의 기대 심리를 저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86년생 시정하는 것이 옳다. 행운의 숫자 : 52, 30	申	44년생 어김없이 이루어질 것이니 기대해 불만하다. 56년생 무리한다면 머지않아 곤혹스러워지리라. 68년생 뒷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법이다. 80년생 이전과는 완전히 판이해질 수도 있다. 92년생 부분으로써 전체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행운의 숫자 : 86, 55
卯	39년생 형식적인 절차는 사족일 수도 있다. 51년생 태산처럼 미동도 하지 말고 자리를 지켜야만 한다. 63년생 시기를 놓친다면 헛수고에 지나지 않게 된다. 75년생 마무리가 완벽해야만 한다. 87년생 역량이 충분하니 굳이 남에게 구할 필요가 없다. 행운의 숫자 : 62, 41	酉	45년생 복잡하고 난해하게 전개 될 수도 있다. 57년생 서로가 피장파장이니 의미는 없다. 69년생 안전에 대한 주의가 요청된다. 81년생 취약점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되었다. 93년생 가랑이에서 비파 소리가 날 정도로 분주하겠다. 행운의 숫자 : 11, 62
辰	40년생 가시적인 것보다 잠재적인 면에 주목해야 할 때다. 52년생 점진적으로 나아질 것이니 계속 밀어 붙여라. 64년생 실정에 대한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 76년생 부드러운 운세다. 88년생 선인이 형성되어 발전적인 상황으로 작용하리라. 행운의 숫자 : 29, 86	戌	34년생 오는 이 막지 말고 가는 이 붙잡지 말자. 46년생 확대 해석해서 전방위적으로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58년생 전혀 다른 의미가 이중적으로 있음을 알자. 70년생 매끄러운 마무리가 이미지를 좌우 하겠다. 82년생 금권에 휘둘리게 될 수다. 행운의 숫자 : 14, 98
巳	41년생 기본적인 것부터 해결함이 유리하다. 53년생 방법을 달리하다보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 65년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아예 만들지 말라. 77년생 유사한 모습이지만 전혀 다른 것임을 알아야 한다. 89년생 아예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3, 68	亥	35년생 유혹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47년생 실속 없는 것과 관련된다면 곤란해진다. 59년생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할 것이다. 71년생 애매하다면 전례에 따르는 것도 무방하다. 83년생 뜻하는 바대로 방향을 잡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67, 51